

Lanxess, “장바구니 가져오세요” 캠페인

독일 화학기업 Lanxess가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장바구니를 가져오세요(BYOB : Bring Your Own Bag)” 환경보호 캠페인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Lanxess는 전 직원들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전달하고 본사 건물 입구에 추가로 비치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쇼핑을 계획중인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Lanxess Korea 고제웅 사장은 “Lanxess는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쇼핑할 때 비닐 백을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가족과 이웃에게도 환경보호 운동이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anxess는 한국지사 뿐만 아니라 중국, 인디아,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지사에서도 환경보호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매년 5000억-1조개에 이르는 비닐 백이 사용되고 있는데 분당 100만개 이상의 비닐 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Lanxess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비닐 팩 사용 최소화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선애 기자>

<화학저널 2008/06/05>